

연중 제 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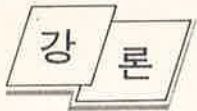
제 1독서 : 2역대 24, 18-22

제 2독서 : 로마 5, 1-5

복 음 : 마태 10, 17-22

순교정미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로마 5, 4).



순교 - 하느님 사랑의 증거



양재철 신부 / 서신동 천주교회

오늘은 우리가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참된 믿음과 순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축일입니다.

오늘 제 1독서는 역대기 하권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타민족의 지배를 받은 것은 바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사제 즈가리아의 순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 2독서 로마서에서는 바오로가 그리스도와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뿐 아니라 인간이면 겪는 일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영광을 희망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뿐 아니라 현재 고통(죽음)도 사랑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크신 사랑을 거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도 역시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필히 거저야 할 순교자 삶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의 그 어느 것보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사제 즈가리아가, 그리고 우리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보여준 순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삶이(죽음·부활) 당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준 순교의 삶이며 아버지와 동료 인간에 대한 위타적인 삶이 유일한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삶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모델입니다.

참으로 이분의 삶을 닮아보려는 한 인간 순교자 김대건 사제의 일생 흔적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유일하고 참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사제직(일반 사제직)에 참여한 사제로서의 우리 삶의 양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사제일진대, 우리의 삶으로

써 이웃을 위한 사람, 이웃을 위하여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순교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인의 축일을 맞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인을 찬미하고 성인께 기도를 바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한 인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은총, 사랑의 승리를 바로 보자는 것이고, 찬미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성인을 기리며 우리도 성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축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가 보여준
순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청산하자

한상갑(바오로)

■ 낙엽을 태우며

자유당 시절에는 선거 벽보를 세카만 신문에 썼다. 그러자니 검은 바탕에 검정 먹물로 기호와 이름을 써야 했고, 강조하고 싶은 정견이나 경력 등에는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신문에 끼어든 선전지조차, 어떤 것은 질높은 종이에 천연색 인쇄로 그 자태를 뽐낸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0여면의 아침신문을 두 부만 받아보다 보면, 읽고 난 신문지를 처리하는 일조차 문제다. 그래도 그건 양반이다. 울긋불긋한 상품포장지, 그것을 태우게 되면 파란 불꽃을 내며 타는 냄새에 금방 메스꺼움을 느낀다. 낙엽이 타면서 내는 상큼한 향내나 벗짚에서 나는 구수한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결코 낭만타령이 아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환경이 파괴되는 한 단면일 뿐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물질문명은 공룡처럼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반비례해서 우리 인간이 서야 할 자리는 자꾸만 오그라들고 있다. 물 한모금, 숨 한 번을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옛사람들은 산이 거기에 있기에 산을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맑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라고 한다. 21년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 오염적 환경들(?)

지금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은 자연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영역들이 오염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봉투 때문에 교육환경이 오염된다고 아우성이다. 10만 양병으로 나라를 지키자던 울곡 선생의 이름을 더럽힌 울곡사업 비리와 부정은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염시켰다. 그것은 이적(利敵) 차원에까지 이르러서 애국과 충성을 오염시키기도 했다. 국방에 구멍을 뚫은 12.12를 군사쿠데타적인 사건으로 규정할, 역사에 대한 집권자의 자리매김은 정치윤리를 오염시켰다. 왜냐하면 쿠데타와 쿠데타적 사건은 얼핏 보아서 비슷하기는 해도 근원적으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오염의 도를 넘어서 폭삭 썩은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 오염이 지나쳐 그 냄새조차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 그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하루하루를 지탱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니, 골치 아프게 살 것이 아니라 쉽게살게 살자는 단세포적인 사고로 나날을 보낸 결과가 빛은 모습이라라.

■ 사정적(?) 시비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새정부가 사정(司正)에 나선 일이다. 그런데 성역(聖域)이 없다는 사정이 그 형평성의 시비를 부르며 사정적으로 호르고 있는 듯이 보여서 문제다. 이것은 사정의 의지를 꺾어내리거나 트집을 잡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누구누구는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며이 넘기지 말자는 이야기다.

새정부는 3당 야합을 바탕으로 출범한 정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도덕성의 시비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정의 빛도 바랄 수 있다. 이런 판국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쓰여졌던 정치자금 공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정부의 도덕성 시비를 불식하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이 깨끗이 청산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이 곧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길이다.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아우들과 함께



염상기(안드레아) / 서신동 성당

옛말에 “스승의 품은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스승이 마음 안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만큼 스승의 인내는 보통 사람의 인내보다 깊고 제자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진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선생님은 여름방학만 되면 각 본당에서 갖게 되는 방학 행사를 이끌어가는 교리교사들 중의 한 분이다.

첫인상이 마치 신학생인 듯한 느낌을 주는 염상기(안드레아·26세) 형제, 그는 전주가 고향으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유아 영세를 받았고 신앙의 큰 갈등없이 성장하였다. 현재 그는 서신동 성당에서 중·고등부 교리교사를 하고 있으며 북전주 중·고 교리교사 연합회 회장, 청소년 성가 활성을 위한 그룹사운드에서도 활동중이다. 아버지께서도 본당 사목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가 처음 교리교사를 하게 된 것은 87년 대학1년 때부터이다. 국민학교 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자라서 교리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 있는 스승의 모습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으리라.

6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온 그에게 인상깊고

보람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름캠프에서의 일들이다. 7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야영을 하고 있을 때 강물이 범람 위기, 급히 학생들을 피신시키고 모두가 협력하여 무사히 위험을 넘겼던 일, 뜻하지 않게 타 본당의 프로그램까지 진행시켜야 했던 일 등.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기도 했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곤 했다. 교리교사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뛰어넘어 함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때 교사로서의 보람을 한가득 느끼기도 한다.

그는 토·일요일은 거의 개인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의 친구들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단다. 자신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교회 안에서 활동, 교리 수업 준비 등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교리교사의 직분을 또 하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가 바라는 소망은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본당에서나 교구에서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사 양성을 위한 재정적인 투자와 이해, 신중한 교리교사 선택입니다.”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맺는다.

신자들의 소리

신앙학교에 보내며

한귀석(바오로) / 효자동 성당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구나. 어른들은 흔히 자라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에 우리 집안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열심히 뛰어 놀고 열심히 공부해다오. 너희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열심히 놀고’는 빼고 학교 공부에만 온 신경을 쏟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제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배우고 체험하는 신앙학교가 열린다니 여간 좋은 일이 아니구나. 신앙학교에서 가르치고 체험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주신 사명인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 믿는다. 이 신앙학교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이웃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나 자신, 나의 가

족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위의 이웃과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 아니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이웃들 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넣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체험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우리 생활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며 희망과 기쁨은 그분을 통해 기도로써 더 깊고 넓게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체험해보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학교 공동체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나가 되도록 네가 잘 도와야 한다.

너의 아빠도 이 신앙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고 감사할 줄 알며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느낄 줄 아는 너의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그려본다.

사랑하는 네 아빠가.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하느님 마음을

방학(放學)이란 의미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에서 벗어나 쉬는 것을 말한다. 방학이 학생들에게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미있는 것을 찾는 시기인 반면 어른들은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생활교육, 인성교육을 자녀들에게 펼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다.

교회도 역시 방학을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주일학교의 여름 교육은 신앙학교와 캠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교육의 첫출발은 놀이적인 차원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방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놀고 싶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사적인 차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 핵심이 희미해지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자 차츰 신앙·교리적인 차원의 교육 형태로 자리 바꿈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차원의 교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여름방학 교육을 통해 비신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치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름 교육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전례적인 생활이 강조된 신앙교육의 연장이어야 한다. 더불어 하느님과 이웃들과의 친교의 삶을 배우고 대자연 안에서 기쁨을 창출하는 생활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적 일깨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각 가정에서나 교육을 마련하는 선생님이나 다같이 기도으로써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교구의 사목지침은 '선교'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어린이, 청소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여름 교육도 교구의 사목지침에 발맞추어 초등부는 '예수님을 따를래요'를 주제로 한 선교에



관한 내용이고, 중·고등부는 '참생명으로의 길'을 주제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재인식하므로써 선교의 주춧돌을 놓는 내용으로 준비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올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신앙학교는 교회의 어엿한 구성원인 어린이들도 선교 사명을 받았음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느님을 이웃에 알리는 작은 선교사의 길을 제시했다.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다운 사도적 활동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각자의 힘대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일이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12항).

* 교재 내용

- 1과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 2과 이웃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요 :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알려야 뉘를 인식시킨다.
- 3과 예수님을 전해요 : 기도와 설교와 사랑을 배품으로써 하느님을 널리 알린 사람들의 삶을 제시해주고 그 가치를 알려준다.

명륜 서예 한문 학원

선 기 정(요 섭)
삼천목육탕 2층
☎ 221-6492

성심한복

계끼, 모시, 레지오 단기,
회합포, 수의 일체
배 망 녀(비울라)
☎ 222-0173
삐삐 012-680-1595

구(九) 죽 염

대리점 모집
• 판매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가능
•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
이 영 근(마지아)
☎ (0658)44-4760, 547-9970

금성 파라

금성 전제품 취급
김 영 환(유스티노)
공무원 연금매장 앞
☎ 78-1669
252-0080

찾아서...

4과 예수님을 따를래요 : 하느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준다.

2.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생명 경시 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인간성 상실을 부추기는 현재태를 직시하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깨닫도록 교리 내용을 준비하였다. 특히 학업에 시달린 학생들을 고려하여 편지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 교재 내용

- 봄의 편지 : 성서를 통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보게 하고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 여름의 편지 : 나의 이웃도 하느님의 모상임을 인식하고 함께 나누는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깨닫게 한다.
- 가을의 편지 :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을 보고 하느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한다.
- 겨울의 편지 : 우리가 받은 고귀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고 모든 생명체 보존을 위한 노력의 삶을 살도록 한다.

「여름 교육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 캠프 프로그램

- 첫째날 : '주님의 숨결로 창조된 나' 라는 소주제를 통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나를 작업과정에서 보게 한다.
- 둘째날 : '주님의 숨결로 창조된 그대 그리고 나' 라는 소주제 아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고 인간 생명 경시 현상을 고발하여 바른 삶을 찾는 마음을 갖게 한다.
- 셋째날 : '함께 가는 생명으로의 길' 이란 소주제 안에서 교육 장소를 떠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생명의 존엄성 수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바를 찾게 한다.

여름방학은 주일학교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평소엔 주일학교는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아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이 어려웠으나 방학 때에는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본당에서 여름 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자녀들을 교육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여름 교육을 하나의 놀이나 연중행사로 여기지 않고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정성을 모아야 한다. 방학 때만이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교육에 묶이지 말고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교육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요심이 (1036) 김병오

군 기밀문서등 66건이 89년부터 일본기자에 유출

기가 막혀 딱 벌어진 입이 다쳐지질 않네

그동안 군수사당국에서는 무엇을 하였소?

군 지휘관 동태 파악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샴이랑 : 온몸, 삼푸, 린스 전용
 - 천연샴 : 부일용(아기샴, 맑은샴)
-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배 배 012-682-6543

커텐장식 · 혼수이불 · 홈패션

천 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 대 원(프란치스코)
박 해 순(헬 레 나)
숲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대리점 판매시원 모집

무독성 · 무공해 세제
천연샴, 맑은샴, 샴이랑, 아기샴
※ 환경에 뜻있는 분
(군산 제외)
변 순 옥(막달레나)
☎ 85-5187 흥경물산 전주지사

금호 펌프카

철근 · 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
김 윤 중(안토니오)
김제시 교동 164-1
☎ (0658)546-0466~7

영은 피아노 교실

이론 철저, 실기 중심의 예능교육,
음악 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취미교
육임. (교우 가족 환영함, 차량 운행)
이 효 은(베로니카)
동산동 우석중 정문 앞
☎ 212-0148

뿌리를 찾아서

상관 성당

— 구교우들의 뿌리 깊은 신앙 공동체 —

도시 근교 지역의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상관 성당은 여왕이신 동정 마리아(8월22일)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다. 일찍이 전동 성당의 관할 공소로 출발하여 1959년 3월 현재의 성당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해 8월에 낙성식을 가졌다.

그후 1967년에 전동 성당에서 분가한 서학동 성당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1976년 12월 본당으로 설정되어 완주군 상관면 전역과 전주시 완산구 색작동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사목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당시 신자수는 1,065명이었다.

또한 본당 공동체는 공소 시설의 강당을 성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1982년 8월 새강당을 완공하였고 1988년 8월15에 사제관 완공 및 축성식을 가졌다. 1977년 1월에 사목

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평신도 단체들을 두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본당의 사목과 선교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목회를 중심으로 레지오 마리아 1개 꾸리아와 8개의 베레시디움 등이 있다.

이 본당은 도시 근교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으며 청년층의 이농 현상이 심해 신자의 노년화가 가속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농촌 본당의 경우처럼 농가의 가난으로 인하여 본당의 재정을 아직도 일부 보조로써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적상의 신자수는 980명에 이르고 실제 신자수는 550명밖에 되지 않으나 구교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앙심이 깊고 열성적인 신자들이 많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초대 고 이상호(아우구스티노) 신부를 비롯하여 현재 제 7대 한봉섭



(시몬) 신부가 사목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며 1992년 11월에 수녀원을 완공하여 성모성심수녀회의 분원이 설치되어 소극적인 전체 분위기를 개선하는 동시에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예비자 인도와 냉담자 회두 등에 전력하며 본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7월의 태양 아래

저의 젊음을
한껏 자랑하려고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
목을 꼳꼳이 세우고 있었습니
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제 정수리에 내리꽃힐 때
저는 저의 강인함을
자랑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가슴 가득 열매를 품고 보
니
가느다란 미풍에도 몸을 움츠리
고



후드득거리는 빗방울에도
놀라는 연약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품고 보니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당신이
저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금동상회(남선대리점)

양은, 스텐 식당용
혼수품 일절, 전북 도매

김 연 옥(수산나)

☎ 84-1606

84-5627

전주 한라스포츠

자칼텐트, 등산용품, 낚시
운동기구

(20~40% 할인 판매)

송 해 리(살로메)

관동로 통신공사 건너편

☎ 84-2941, 88-1960

국악 연수생 모집

· 교육과정: 민요·노래·장고

· 기간: 기초 6월10일-7월15일

(연구반, 전문반 수시 모집)

· 장소: 전주 동국대학교 내(국악교실)

· 문의: 77-1941(한국국악협회전북지부)

이 상 덕(대건 안드레아)

교구소식

❖ 교구장 사목방문

- 때 : 7월6일(화) 오전 10시
- 곳 : 수류 성당
- 때 : 7월8일(목) 오전 10시
- 곳 : 인후동 성당
- 때 : 7월8일(목) 오후 3시
- 곳 : 고산 성당
- 때 : 7월9일(금) 오전 10시
- 곳 : 시기동 성당
- 때 : 7월9일(금) 오후 3시
- 곳 : 요촌 성당

❖ 성서 특강

- 때 : 7월16일(금) 오전 10시, 오후 8시
- 곳 : 전동교육관 2층
- 주제 : 구약성서의 지혜문학
- 강사 : 임승필 신부(성서위원회 총무)
- 문의 : 85-0041(사목국)

❖ 빛두레 신앙인 학교

- 때 : 7월5일(월) 오후 7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강사 : 고희석 교수(전북대)

❖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때 : 7월5일(월) 오후 12시30분

❖ 천호 피정 안내

- 때 : 7월8일(목)
- 주제 : 올바른 신앙생활
- 강사 : 이수현 신부
- 때 : 7월10일-11일
- 주제 : 현대의 복음선교
- 강사 : 정승현 신부
- 문의 : 73-6600 천호 피정의 집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7월11일(일) 오후 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수녀연합회 모임

- 때 : 7월6일(화) 오전 10시
- 곳 : 가톨릭센터

❖ J.O.C. 선후배 모임

- 때 : 7월9일(금) 오후 8시
- 곳 : 가톨릭센터 후문
- 문의 : 87-2577

❖ 나바위 수영장 개장

- 때 : 7월1일부터 오전 9시-오후 5시
- 대상 : 유치부, 초·중·고생, 성인
- 입장료 : 1,500원(3시간 동안)
- 특전 : 50명 이상 단체 입장 예약시 10% 할인(본당신부 추천 때)

- 점심 : 3,000원(예약할 때 가능)
- 주의 : 수영복·수영모(미착용시 입장 불가), 수영복·수영모 남·녀 각 50벌 대여
- 문의 : (0653)861-9210 수녀원

❖ 사랑의 다리 윌레미사

- 때 : 7월5일(월) 오전 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빈첸시오회 중앙이사회

- 때 : 7월10일(토) 오후 3시
- 곳 : 남원 도동동 성당

❖ 축! 명명

- 5일(성안드레아 김대건) 김진소 신부님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7월19일(월) 오후 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늑대개
- 내용 : 노다지를 꿈꾸다 알래스카에서 죽어간 아버지를 찾아 알래스카로 온 책은 장사꾼인 알렉스와 함께 길은 떠나나 늑대의 습격으로...
- 회비 : 1,000원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침구류와 카페트 세탁법

침구류와 카페트는 주 1회 정도 일광소독을 해야 박테리아와 진드기 등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탄력도 되살아나고 보송보송해진다. 일광소독 시간은 맑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적합하다. 일광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 막대기로 두들겨주어야 먼지와 함께 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다. 온 집안을 깔끔하게 쓸고 닦는 주부들도 침구와 카페트 등에 우리 몸에 해로운

진드기,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사람이 자면서 흘리는 땀의 90%를 차지하는 수분과 염분은 공기중으로 날아가지만 나머지 10%에 포함된 지방분은 진드기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 진드기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며 먼지와 함께 입으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

전주 성심여고 제21회 동창회

- 때 : 1993년 7월9일 오전 11시
- 곳 : 성심여고 내 동창회관
- 회비 : 7,000원
- 위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 75-7908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준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 88-5580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활티생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혼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기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 14주일

※ "축" 세례: 32명, 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찬조금 접수: 사무실, 많은 힘 조바랍니다.
2.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②꾸리아 권사의 모후(11일 장미미사 후)
자마의 모후(11일 후 2시)

3. 금주 청소: 중노3,4반
차주 청소: 중노5,6반.
□ 지난주 봉헌금: 986,890원 □ 교무금: 1,739,500원
□ 2차헌금: 376,65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영세식 및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회합: ①대견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구역분과회(6일 오전 10시) ④울트레아(6일 저녁미사 후) ⑤안나회(8일 오전 10시) ⑥여성분과회(10일 오전 10시) ⑦요셉회(11일 공식미사 후) ⑧꾸리아(11일 오후 2시) ⑨청년회(11일 저녁미사 후)
3. 여름 성경학교 찬조금: 안순금 10만원, 전광원, 제대회 2만원, 누계 20만원.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박남수 씨 부부
봉헌-조백환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안윤정 씨 부부
봉헌-윤재원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68,330원 □ 교무금: 1,077,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욱

◎ 오늘은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1. 모임: ①꾸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60세이상 할아버지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③성체강복-8일(목) 저녁미사 후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3. 감사: 제대꽃-한바리아
4. 신자의 의무인 주일미사를 결하지 맙시다.
주일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토요 특전미사(학생)-오후 7시30분.
5. 차주 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박귀철 ②김연순
봉헌-이기봉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6,650원 □ 교무금: 250,00원
□ 2차: 151,24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연중 제 14주일

◎ 축! 영명: 신부님의 영명축일 진심으로 축하하옵니다(공식미사 후 축하식)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반장회: 7월4일(오늘) 공식미사 후(반장님들 전원 참석바람)
2. 꾸리아: 7월4일(오늘) 오후 2시
3. 사목회: 7월7일(수) 저녁미사 후.
4. 자모회: 7월7일(수) 오전 10시30분.
5. 중고등부 학생 여름캠프: 7월23일(금)-7월25일(일)(2박3일)
장소-부안천주교 마포강소.
6. 다음주일은 어린이 여름 신앙학교 위해 2차 헌금 있음.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욱 목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 14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2. 가정방문: 7일(까치댄스)
 3. 첫습니다: 성가대원.
 4. 1인 1예비자 인도의 사명, 원수합니다.
 5. 교구 성서교실 희망자: 사무실에 접수.
 6. 청소년 봉사: 3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688,860원 □ 교무금: 1,32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계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요셉회(후 6시)
2. 배에따회: 7일(수) 오전 10시
3. 명화 상영: "25시" 7일(수) 저녁미사 후.
4. 유아세례: 10일(토) 오후 3시-사무실에 미리 접수
5.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울트레아(공식미사 후)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6. 청년연합회 하계 수련회: 7월17일-18일, 장소: 경남 하남군 하계면 의전마을. 대상: 본당 청년 모두. 출발: 오전 8시30분.
7. 고정 전례: ①고백성사-평일미사 전후 ②혼인 반탁-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③유아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④성체강복 및 조매-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0시 ⑤명사 봉성체: 매월 첫주 금요일 오후 2시 ⑥차량 축성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914,4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국수잔치.
2. 사목회 상임위원회: 8일 저녁 8시 사제관 여름계회.
3. 성체회 첫고백성사: 7일(수) 전 10시, 저녁 7시.
4.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참가신청: 11일까지 초등부 회비-오천원, 중·고등부-일만원,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행사 준비에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바랍니다.
5. 회의: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부녀회-7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9일 후 3시. 나는 어디에 소속해 있나?
6. 남성 45차 꾸르실로: 7월29일부터, M.E 강습회: 8월20일부터 있습니다. 신착순으로 오늘까지 접수바람.

□ 지난주 봉헌금: 1,257,900원 □ 교무금: 2,20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 8시.
 3. 구역장 월례회: 6일(화) 오후 8시30분.
 4. 전례자 회의: 7일(수) 오후 8시30분.
 5. 대견회: 8일(목) 오후 8시30분.
 6.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7. 오늘은 제대꽃 봉헌 주일입니다.
- 금주 전례: 장희연, 독서·봉헌-김안강, 임홍광
차주 전례: 김정숙, 독서·봉헌-이옥자, 장분협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심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 오늘은 연중 제 14주일입니다.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축" 영세식: 오늘 오후 3시(대부대모님과 함께 2시까지 입학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330,120원 □ 교무금: 3,376,500원

1. 관자 봉성체: 7월6일(화) 오후 2시부터.
2. 성소후원회: 7월18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이번에는 새로 가입한 분들은 물론 그전부터 이미 가입한 분들 모두가 참석바랍니다.
3. 초중고 학생 여름연수가 7월26일부터 29일까지 빈암 동화국교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성의있는 협조와 정성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청년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이며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주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미사 안내: 금주-원희영이, 셋별. 차주-순명의 모후, 애덕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의 도

1. 모임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자모회-7월7일 오후 2시 ③구역분과 위원회-8일(목) 10시 미사 후. ④성모, 성심회-9일(금) 10시 미사 후.
2. 초중부어른성경학교: 7월20일~24일. 중고생하게수련회-7월23일~25일.
3. 본당의 날 행사겸 전신지성지순례: 9월12일. 차주모임-울트레아, 기우회. 신축헌금봉헌액 2,36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김태민 ②정수영
봉헌안내-박종원 부부, 강인성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조재용 ②홍성인
봉헌안내